

변(變)해야 산다

Changing is a Matter of Survival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는 것을 버거워 하지 않는다.
죽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아무도 탓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주어진 것으로만 억척으로 산다.

(시인 김종태씨의 「잡초는」중에서)

주어진 것으로만 억척으로 사는 건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아는 건축사 한 사람은 IMF때 사무실 문을 닫고 분당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적당히 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 이도 저도 되지 않으니까. 흥익대 앞에서 '우동가게'를 시작했고, 이제는 그런대로 자리를 잡고 돈도 벌고 오토바이로 배달도 다니는 전혀 다른 모습의 건축사로 변해있었다.

바다에 낚선 사람들이 배(船)를 오레 타다 보면 육지에 내렸을 때 모든 땅이 다 흔들리듯 출렁거리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건축계의 모든 공간은 흔들거리고 있다. 이런 전환기일수록 우리 건축사들은 중심과 중심을 잇듯 자부심과 명예를 도면 위에 긋고 흔들리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전혀 다른 변화들...

최근 건축사협회의 여러 변화들을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결코 과거의 연장선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는다. 우리 건축사에게는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전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가 되었다.

밭을 가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이제는 서로의 과거를 돌아보는 잘못과 과실을 논하는 따위의 '뒤'는 접어버리자.

너무 늦기 전에 과거는 빨리 잊어 버려야 한다.

어느 의사의 이야기를 예로 들자.

작은 가시 하나에 찢려도 아프다고 소리지르던 청년이 전쟁터에서는 파편을 맞은 상처의 아픔도 잊고 싸울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몸 속의 '엔돌핀'이 차고 넘쳐서 고통을 잊을 수 있고, 전쟁의 승리만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던가.

이제 우리 협회도 진정한 의미의 엔돌핀 넘치는 CEO(최고경영자)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하고 황무지에서 출발하여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기업들을 일구어 온 CEO들처럼 우리 건축사협회에도 자랑스러운 CEO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CEO의 가장 큰 책무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건축사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새로운 CEO는 먼저 자신을 위한 사무실의 업무는 접어두고 협회운영이 아닌 경영에 임할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CEO의 리더십은 협회내의 팀워크를 구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제 독불장군식 경영은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 회사의 주주와 같은 회원들의 다양한 견해가 분석되고 용해 될 때 비로소 바른 의사 결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는 때로 개천(川)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일까? 물이 얕다고 판단하고 바지를 걷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징검다리를 놓고 건널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이 많이 불어나서 도저히 그도 저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영국군 포로들은 그 열대의 모든 악조건을 이겨가며 다리를 만들지 않았던가. 우리도 이제 바지부터 걷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안전하고 완전한 다리를 건설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건축관계 법령의 개정과 건축사업무 대가 기준의 존폐문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용역수행, 새로운 협회 운영진의 선출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을 앞에 두고 이에 임하는 우리 회원들과 우리의 CEO의 자세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회원의 이익(권익)을 창출하는 CEO와 함께 하는 협회로 변해야 산다.

흔들림은 같은 방향으로 흔들어 주어야 하듯이 주어진 것으로만 역적으로 살자.

변해야 산다. ㉮